

17세기 초 프랑스 남자복식 디자인 및 구성 연구 -뿌르뽀앙(Pourpoint)과 오 드 쇼스(Haut-de-chausses) Study on French Man's Cloth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early 17th Century -Pourpoint and Haut-de-chausses

김 양 희⁺ · 정 성 혜
Kim, Yang Hee⁺ · Jung, Sung Hye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Concurrent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fashion design, an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erformance costumes by exploring features of Pourpoint and Haut-de-chausses of the early 17th century such as forms, materials, details and sewing techniques through various kinds of data, recreate patterns and help accumulate data regarding dress from the past.

Content and method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study overcomes limitations of setting types of era based on consideration of several painting materials and simple advanced studies of description of forms and provides objectivity and accuracy by setting representative types through analysis of vast volumes of fashion printmaking.

Secondly, the study seeks to compare these with different types of materials to complement shortcomings of a single data and analyze forms. Writing and painting materials make comparative analysis of colors and adornments possible, and advanced studies that regenerated rare historical materials observe examples of forms and compositions.

Thirdly, reproduction with Muslin three-dimensional cutting technique will help figure out more exact structures and, furthermore, will be readily available. After reviewing advanced studies on literature regarding patterns of the day and on reproduction of patterns, regeneration occurred, adopting Muslin and finally, pattern was presented.

As a result, a resulting representative type has transitional design characteristics that move away from a rather unnatural and exaggerated baroque style into a bright and natural rococo style. The pattern also reflects this trend, making movement of bodies easier while pursuing natural shape by connecting bodice cut in straight lines close to the body to lower part of waist and sleeves. Pants become loose with puckered waist and in overall, follow bodily silhouette. In addition front is fixed, adjusted straight front fly, which makes those pants look nearly the same as modern-day pants.

Key Words : Pourpoint, Haut-de-chausses, Men's Costume, Pattern

접수일: 2007년 9월 20일

교신저자: 김양희, E-mail: lydianskim@hanmail.net

I. 서론

단순하고 기능적인 것에 집중되었던 모더니즘 양식의 획일성에서 탈피하여 서로 다른 양식을 혼합시켜 새로운 스타일 가능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노력은 과거와 현대를 융합하여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는 역사주의적 작업방식으로 표현되어왔다. 이는 현재 디자인 트렌드 컨셉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형태표현의 기교와 장식성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 혼합의 디자인주제는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외 및 국내의 수많은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수없이 많이 다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디자인 발상의 원천인 역사주의는 다문화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절충을 해가며 더욱 더 많은 과거의 자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면서 무대미술 및 의상 등을 취급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대의상제작에 기본 자료가 되는 다양한 역사 자료의 발굴 및 정리는 물론 올바른 역사적, 미학적 해석이 바탕이 된 의상제작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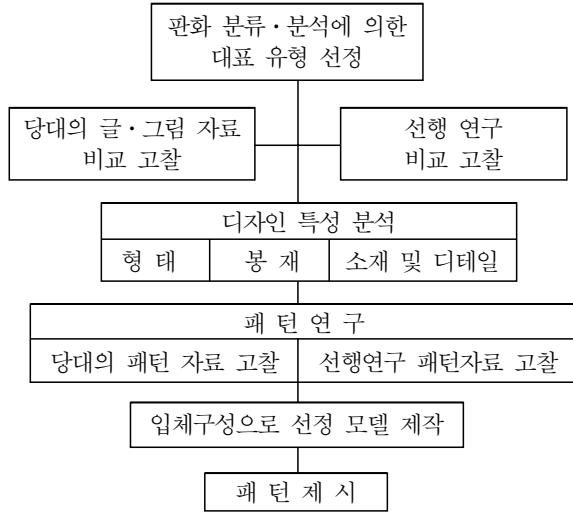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초 서양 남성복의 대표 유형인 뿌르쁘앙(Pourpoint)과 오 드 쇼스(Haut-de-chausses)의 형태, 소재, 디테일, 봉제기법 등의 특징을 여러 종류의 자료를 통해 면밀히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패턴을 재현하여, 과거 복식에 대한 데이터 축적에 일조하므로 패션디자인 창조와 공연의상연구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초자료로는 대표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프랑스국립 도서관에 소장된 해당시기(1600~1630)의 패션관화 목록 중, 82장을 수집하였다. 계속해서, 추출된 대표유형과 매우 근접하여 색상과 디테일 고찰에 용이하여 선별한 17세기 초반의 그림2점과 로렌공정의 고문서 자료를 비교 고찰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 1589년과 1671년에 각각 출간된 패턴 북은 한국에서 처음 소개되는 매우 희귀한 자료로 재현을 위해 참조되었다. 이렇게, 출처가 분명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비교 고찰하여 해석한 후, 이를 토대로 선정모델 제작하였으며,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몇몇 그림 자료 고찰에 의한 시대유형 설정과 형태기술의 단순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다량의 패션관화 분석에 의해 대표 유형을 정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부여한다.

둘째, 이를 다시 다른 종류의 자료들과 비교하여 단일 자료의 결점을 보완하면서 형태를 분석한다. 글 자료 및 그림 자료에 의해서는 색상과 장식의 비교적인 고찰이 가능하며, 희귀한 실제 사료를 재현한 선행연구는 형태 및 구성의 예를 관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머슬린 입체재단법으로 재현하는 것은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결과물들은 바로 활용가능 할 것이다. 우선, 당대의 패턴에 관한 문헌자료와 패턴 재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고찰된 대표유형의 형태와 비교하며 머슬린 재현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림 1> 연구 구성도

패턴을 제시하고자 한다.

용어에 있어서는 불어 음을 한국어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설명 시 현재 통용되는 영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 혼용하여 썼음을 알려둔다.

II. 이론적 고찰

1. 유형의 선정

판화는 다양한 측면으로 형태를 묘사하고 있으며 많은 디테일을 보여주어 세밀한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정확한 날짜를 수록하고 있고 다량으로 복사가 가능하여 각 시대의 대표 유형 및 습관을 보급하는 도구로써 복식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수없이 참조되어온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자료이다. 해당 시기 판화의 출처들을 작가, 연도별로 수집, 정리한 것들 사이에서 원형(prototype)을 잘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컬렉션 별로 목록화 하고, 실루엣의 변화를 기본으로 한 형태상의 차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여러 작가의 판화에 의해 관찰되어 객관적인 시각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으리라 보고, 연도의 결합이 없어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불확실한 추정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들 중 컬렉션들의 제목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집된 패션판화 총 82장 전체자료 중 귀족층이 63%에 해당하는 분포를 보였다. 궁중인물, 귀족 등 상류층이 주요 등장인물로서, 관찰이 일부 계층에 제한되어 있음을 먼저 밝힌다.)

수집, 분류된 자료들의 작가, 제목, 형태를 고찰하므로 본 연구의 자료 범위와 선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1624년에 제작된 Jacques Callot의 컬렉션 ‘귀족(La noblesse)’은 당시 프랑스 로렌 지방의 상류 부르주아 가족 구성원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145×93 mm의 크기로 다른 판화들과 달리 선이 자유롭고 강하여 매우 독특하게 표현되었다.

1624년부터 1630년까지 140×100 mm 크기로 제작된 Daniel Rabel의 판화는 섬세함이 돋보인다. 화려하게 묘사한 12벌의 여자복식을 여러 다른 모습을 한 여자들은 파리의 패션을 완벽하게 연출하였다.

Saint-Igny는 화가이자 동시에 판화 제작자로, 의상을 주제로 하는 그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Melchoir Tavernier 그리고 Abraham Bosse와 함께 작업을 하여 많은 결과물을 냈다. 1629년경의 ‘프랑스 귀족의 정원(Jardin de la noblesse française)’과 ‘성당 안의 프랑스 귀족(La noblesse française à l'église)’이 바로 그것이다. Melchoir Tavernier에 의해 인쇄된, 다양하게 옷 입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는 ‘프랑스 귀족의 정원’은 표지에는 세 명의 젊은 귀족이 난간에 기대어 남녀 귀족들이 정원을 거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모음집으로 146×93 mm 크기 18장으로 구성되어있다. Saint-Igny가 제작한 152×92 mm 크기 13장으로 엮어진 ‘성당 안의 프랑스 귀족’은 각 장에 밑그림과 판화 제작자의 이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Abraham Bosse의 판화 ‘사치금지령을 따르는 여인(Pièces concernant la mode et les édits)’ (288×201 mm) 두 장과 ‘개혁된 여인(La femme réformé)’ (289×196 mm) 두 장은 몸치장에 대한 당시의 논쟁을 주제로 하여 주목해 볼만 하다.

Issac Briot에 의해 제작된 두 권의 모음집은 로렌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계급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복식을 입은 젊은 여인들을 수록한 ‘프랑스의 극장 (Le théâtre de France contenant la diversitez des habits)’ (140×95 mm) 21장이 1629년에 제작되었고, 1630년에는 초상복을 포함한 ‘유행되는 다양한 복식(Diversitez d'habillemens à la mode)’ (150×110 mm) 13장이 소개되어 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1630년을 전후로 제작된 판화들에서 시기적 변화를 볼 수 있다. 17세기 초에는 스페인의 영향력이 여전히 복식에 남아 있어, 누비가 되고 슬래쉬 장식이 많은 몸에 매우 밀착된 뿌르쁘앙과 둥글게 부풀려진 오 드 쇼스 일습이 주류를 이루었다.<그림 2>²⁾ 1620년에서 1630년 사이에는 누비에 의한 무게감이나 몸판의 과도한 밀착이 다소 경감되고, 뿌르쁘앙의 소매와 몸판에 슬래쉬 장식을 하였다. 오 드 쇼스 역시 부피가 감소하고 길어진 빵팔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그림 3>³⁾ 1630년경 사치금지령을 기점으로 장식이 사라지고 검

1) 김양희(2006). 16~20세기 초 프랑스 패션판화와 패션잡지의 변천, 의상디자인학회지, 7(2), p. 27.

2) Nobiles Galli. (1598). BNF. Oa19 M11271



<그림 2> 프랑스귀족
(작가미상 1598)



<그림 3> 귀족의정원
(Tavernier 1629)



<그림 4> 사치금지령
(Boss 1634)

소해 졌으며 여유분이 많은 마지막 단계의 뿌르뽀앙과 무릎부분이 거의 밀착된 오 드 쇼스가 되었다.<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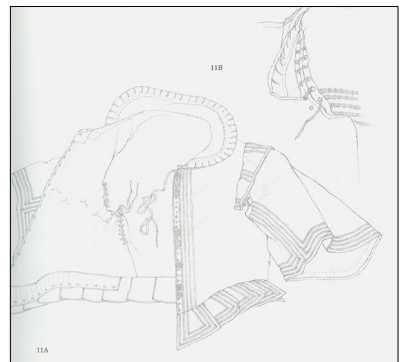
이 중 소개한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 유형인 두 번째 모델을 다른 여러 사료와 비교하여 디자인특성을 고찰한다.

2. 형태 및 구성 특징

<그림 3>은 1630년 Abraham Bosse의 판화 컬렉션 ‘귀족의 정원’ 중 하나로 스페인이나 이태리 패션중심의 중세 복식에서 벗어나 프랑스 중심의 근대패션으로의 이전을 예고하는 1620년과 1630년 사이 뿌르뽀앙의 대표적 유형을 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판은 매우 밀착되어 있고, 앞여밈이 벌어지지 않도록 칼라부터 허리선까지 매우 촘촘하게 단추가 달려 있다.

몸판 허리하단은 허리에서 엉덩이로 확장되는 위치로 썬, 이전부터 여러 장의 천을 허리둘레에 잇대어 놓은 바스크(basques)로 움직임은 원활하게 하고, 바지와 연결부위를 가려왔다. F. Elle의 그림 ‘로렌의 헨리 2세’ 초상화를 살펴보면, 바스크는 몸판을 연장시키며 엉덩이 부분에서 넓어지며 허리선처럼 앞 중심이 뾰족이 내려오는 모양이다. 바스크 위쪽에 구멍이 있고 바스크와 맞



<그림 5> 바스크 (Arnault 1985. p.72)

3) Tavernier, M. (1629). Le Jardin de la noblesse. BNF. Oa19 M11390

4) Bosse, A. (1634). Le courtisan suivant le dernier edit. BNF. Oa45 R071400

닿아있는 몸판에도 구멍이 있어 끈으로 둘을 연결하기도 하였다.

바스크의 V형 허리선 아래에도 이같이 구멍 테입을 달아 오 드 쇼스를 끈으로 상의에 마치 한 별처럼 연결하기도 했다.⁵⁾

누비거나 말총이나 마분지를 넣어 딱딱한 몸판과 무겁게 안감을 넣고 장식된 소매를 연결 하는 진동돌레의 시집에는 안감 없는 초생 달 모양의 날개(épaulette)를 덧대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양쪽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솔기를 강화하였다. 진동돌레의 곡선을 소화할 수 있도록 작게 나누어 연결한 모습을 볼 수 있다.⁶⁾ 더군다나 날개 아래에 구멍 테입을 같이 덧대고, 소매는 따로 분리시켜, 끈으로 연결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끈을 느슨하게 묶어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⁷⁾

소매나 몸판에 스프래쉬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속에 입은 슈미즈나 안감이 그 사이로 보여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고, 여유분 또한 형성하였다. 1625년 Antonius Van Dyck의 그림 ‘Antoin de Bourbon’⁸⁾은 가슴에 길이로 스프래쉬가 있는 뿌르쁘앙을 세밀히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또 Dirk Hals⁹⁾의 그림에서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 6개, 뒤 6개, 전체 12개의 트임으로 구성되었다. 때로는 F. Elle¹⁰⁾의 그림에서와 같이 소매의 트임 부분을 여러 개의 리본 테이프를 늘여지게 만들어 장식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따로 만들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장식으로, 높은 뿌르쁘앙의 칼라 위로 펼쳐



<그림 6>Antoine de Bourbon (Mersen 1625)



<그림 7>Réunion dans un cabaret (Hal 1630경)



<그림 8>Henri II de Lorraine (Elle 1631)

5) Arnoult, J. (1985). Patterns of Fashion: The cut and construction of clothes for men and women c1560-1620. London: Macmillan London Limited. p. 25.

6) Ibid., p. 70; p. 26.

7) Ibid., p.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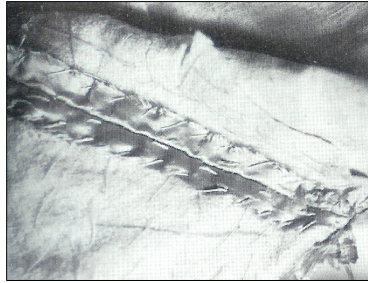
8) Mersens, J. (1625) Antoine de Bourbon. BNF. Oa19 M11318.

9) Hals, D. (1630경). Réunion dans un cabaret. Coll. H. Leroux.

10) Elle, F. (1631). Henri II de Lorraine. Musée de Reims.



<그림 9> 심지 넣는 방식
(Arnoult 1985. p.26)



<그림 10> 솔기 처리 방식
(Arnoult 1985. p.29)



<그림 11> 단추 구멍 바느질
(Arnoult 1985. p.24)

지는 레이스 둘린 매우 넓은 목장식과 소매 끝을 덮는 커프스를 더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몸판 내부 사진을 다량 수록 하고 있는 J. Arnold의 연구에서는 뿌르쁘앙의 바느질방식, 안감 넣는 방식, 심지 넣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봉제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솔기는 감침질로 꿰맨 후 박음질로 눌러 박거나, 다른 천을 덧대어 솔기를 강화하기도 하고¹¹⁾ 봉합 할 부분은 겹끼리 마주쳐 박음질 한 후 가름솔로 꺾어 안에서 감침질로 고정시킨다.¹²⁾ 단 처리는 두 번 접어 감침질이나 박음질로 박는 경우가 많았다. 단추 구멍도 바느질로 마감하여 만들었다.¹³⁾ 안감은 린넨류나 실크 등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어깨나 진동둘레의 봉합 부분은 안감으로 사용한 실크 새틴 조각으로 덮어 감침질하여 마무리했다.

뿌르쁘앙의 몸판은 가슴앞쪽에 심지를 강화하여 외관이 딱딱하게 보이게 했다. 검정이나 흰색 린넨을 주로 시침질로 접합하는데¹⁴⁾, V자형으로 바느질하게 되면 둥글게 잘 휘어지는 성향이 있다. 이는 현재도 테일러드 칼라에 많이 쓰는 기법이다. 어깨 솔기부분은 린넨으로 하지 않고 울 심지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해준다.

오 드 쇼스는 허리에서 주름을 풍성히 잡아 엉덩이 부분이 부풀려져서 여유가 있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 들어 무릎 아래까지 이른다. 그리고 오 드 쇼스는 F. Elle 의 그림처럼 바지 옆선에 트리밍이나 단추 띠로 장식되었다.

로렌 궁정의 1631년 5월 15일 문서에서도 자세한 재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금속으로 씌어진 84개의 단추로 옆선이 장식되고 물결무늬의 베니스 견직물 소재의 쇼스; 푸르산 실크 장식끈으로 주머니 입구와 셔를 장식하고, 같은 색으로 염색한 은으로 된 잠금 고리가 있는, 네덜란드산 사지 안감을 넣은 얇은 평직 바지”¹⁵⁾

11) Arnoult, J. op. cit., p. 18.

12) Ibid., p. 29.

13) Ibid., p. 24.

14) Ibid., p. 27.

이렇게, Hippolyte Roy는 로렌 궁정의 의복재료 상인들이 발행한 영수증 문서를 연구한 그의 저서 ‘17세기의 생활, 패션 그리고 복식’에는 이 당시 뿌르쁘앙의 소재와 장식을 잘 기록하고 있다. “베니스의 물결무늬 견직물 안감을 넣은, 작은 꽃무늬의 밀라노식 금실자수가 있는 은사를 섞어 짠 평직의 뿌르쁘앙이 슬래쉬 한 솔기 끝에 가는 금사와 은사로 섞어 짠 레이스로 장식” 라고 기록되어 있다. 17세기 초반까지 이태리 직물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었고, 직물과 장식이 매우 호화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¹⁶⁾

III. 선택 모델 제작

1. 선행 패턴 연구

우선, 앞장에서 고찰한 형태에 관한 정보와 종합하여 재현에 이를 수 있도록, 당시에 근접한 자료에 기록된 패턴의 형태와 선행되었던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589년 마드리드에서 발행된 Juan de Alcega의 문헌에서¹⁷⁾ 16세기말 뿌르쁘앙의 패턴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필요량의 천에 도식형태의 패턴을 배치한 그림을 수록한 책으로, 오늘날보다 매우 좁았던 폭의 천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17세기 초 반까지 등장했던 뿌르쁘앙과 오 드 쇼스와 비슷한 유형의 패턴을 찾아볼 수 있는데, 뿌르쁘앙의 앞 중심이 복부부분에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길게 내려와 예각을 이루고 있으며, 몸판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아 패딩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몸판 아래에 달릴 바스II가 스커트처럼 퍼지고 짧은 형태이고, 칼라는 몸판에서 연장되거나 따로 재단된 스탠딩 칼라이다. 소매는 손목에서 좁아드는 딱 맞는 소매이며, 소매산은 매우 낮아 역시 어깨에 밀착되어 낮게 달렸을 것이다. 몸판의 크기가 매우 작아 보이는 다른 뿌르쁘앙은 허리선이 높고 바스II가 길다. 오 드 쇼스는 매우 넓고 무릎에서 급격히 줄어들어 주름이 많고 부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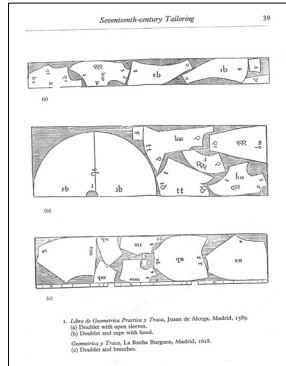
Benoît Bouilly에 의해 1671년에 발간된 프랑스 문헌 ‘진정한 재단사(Le tailleur sincère)’는¹⁸⁾

15) Roy, H. (1924). La vie, la mode et le costume au XVIIIe siècle: Epoque Louis XIII: Etude sur la cour de Lorraine. Paris: E. Champion, p.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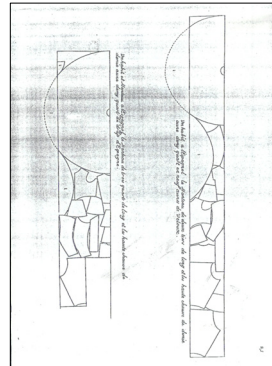
본문 “Chausses en tabis de Venise nuance racine, passémentées comme dessus avec 84 boutons à ‘ferluches’ sur le côté, tête façon orfèvrerie caleçon en fine toile de Hollande doublure de serge escot ‘pochettes’ et parements intérieurs dudit tabis galon de soie de Tours, même teinte agrafes façon argent”

16) Ibid., p. 204. 본문 “Pourpoint en toile d’argent à petit fleurons d’or, broderie façon Milan icelui découpé ‘près à près’; doublé en tabis de Venis nuance racine avec une dentelle de fin or, mêlé de fin argent, sur les taillades comme aux extrémités”

17) Alcega, J. de. (1598). Libro de geometrica. Espagne: Fac-simile de l’édition.



<그림 12> Libro de geometrica (Alcega 1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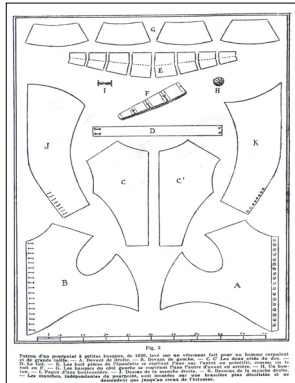
<그림 13> Le tailleur sincère (Boullay 1671)

Colbert 재상에게 헌정된 패턴에 관한 두 권의 문헌으로 한권은 In-8 folio(20×13 cm) 크기로 패턴 형태와 제작방법을 94장으로 구성하였고, 다른 한권은 더 큰 In-folio(40×26 cm) 크기의 동판화로 48장의 소요량의 천 크기에 패턴을 배치한 그림을 인쇄한 것이다. 완성된 패턴을 매우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치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옷감에 가장 경제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전시하고, 더불어 옷 길이와 옷감 필요량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 일종의 사용법을 제작함으로 합리적인 재단기술을 제시하였다. 더구나 식서를 옷 길이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림 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스페인 직물로 된 아버와 쥐스또꼬르의 예처럼 옷감의 폭이 넓어서, 오 드 쇼스는 옷감을 접어서 재단하는 것이 좋고, 아버의 작은 패턴조각들은 빈곳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¹⁹⁾ 는 등, 조각이 큰 패턴을 먼저 배치한 후에 작은 조각들은 옷감의 절약을 위해 남는 부분을 이용하는 면밀함까지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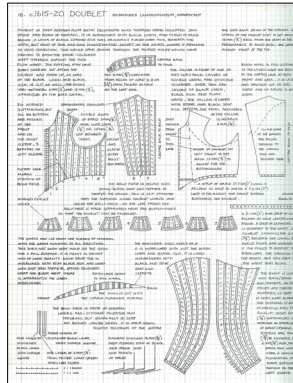
수록된 패턴 중 재현할 모델과 형태가 매우 근접한 유형이 발견되는데, 뿌르쁘앙은 가슴을 덮고 허리까지 오는 상의 종류로 때로 소매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바스끄(basques, 페플럼 peplum)가 허리 아래에 달린다. 쇼스, 오 드 쇼스, 필로뜨는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들은 치마처럼 넓은 바지통 형태이거나, 무릎으로 갈수록 직선적으로 좁아드는 모양의 패턴에 용어가 혼용되어 쓰였다. 이중 재현할 모델의 가장 유사한 바지 모양을 살펴보면, 후에 주름을 잡을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직선 허리로 폭이 넓고, 엉덩이 선을 따르는 밑위는 움직일 때 죄어들지 않게 다소 길며, 옆선은 직선으로 식서 방향과 일치시켰고 가랑이 안쪽이 사선으로 바지통이 밑단까지 점차 줄어드는 모양이다. 무릎보다 약간 긴 길이로 추정되고 밑단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움직임에 용이하도록 세밀히 제도 되었다.

18) Boullay, B. (1671). Le tailleur sincère. Paris: BN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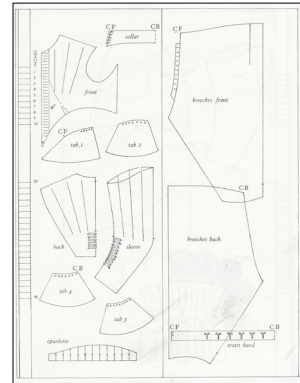
19) Ibid., p.



<그림 14>재현패턴 1
(Waugh 1964. p.24)



<그림 15> 재현패턴 2
(Leloir 1933. p.11)



<그림 16> 재현패턴 3
(Arnould 1985. p.85)

2. 패턴제작

이미 재현된 N. Waugh²⁰⁾, M. Leloir²¹⁾, J. Arnould, 의 선행 연구에서 모델제작에 사용할 마네킹과 비슷한 치수이고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는 패턴들을 선택하여 고찰하고, 입체구성 실행 시 비교하여 참조하여, 상의는 오른쪽을 하의는 전체를 제작하였다. 최종패턴은 CAD로 작업하여 1/10축도로 제시하였다.

당시 패턴은 바디에 매우 밀착되고 인체표준사이즈 역시 현대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기본치수는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사이즈와 근접한 우리나라 남성복 표준사이즈를 채택, 가슴둘레 94cm 허리둘레 79cm 신장 170cm을 기준으로 하였다.

1) 뿌르뵘앙

(1) 기준선 입체재단을 하기위해 <그림 17, 18>과 같이 스타일 테입으로 기준선을 정한다. 먼저 앞 중심과 뒤 중심 세로 선을 표시한다. 그리고 어깨선에서 엉덩이 까지 이어지는 옆선 세로선도 표시한다. 둘레 항목 부분의 가로 선은 목둘레와 허리선을 기준으로 한다. 허리 기준선은 마네킹 상의 허리선이 아닌 몸 판 하단에 바스크가 달리는 허리선을 새로이 정하는데 마네킹 허리선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앞 중심이 뾰족하게 긴 형태로 V자형을 만든다. 진동둘레의 모양은 진동 깊이는 낮고 진동 너비는 넓은 형태로 표시한다.

20) Waugh, N. (1964).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London: Faber.

21) Leloir, M. (1933-1949). Histoire du costume de l'Antiquité à 1914: Epoque Louis XIII 1610-1643. Paris: Ernst.



<그림 17> 기준선 전면



<그림 18> 기준선 후면

(2) 몸판은 앞 중심과 뒤 중심이 식서가 되도록 천을 앞뒤에 각각 위치시키고, 목둘레선, 어깨선, 허리선, 옆선의 순서로 형태를 만든다. 칼라가 달리도록 앞 목둘레는 1-2cm 정도 파주고 옆 목점을 지나 뒷 목점에 이르는 둥근 형태의 목둘레선을 만든다. 허리선은 이미 스타일 테입으로 표시된 바 있는 앞 중심이 뾰족한 V 자 형태로 한다. 어깨선과 옆선을 정리하여 앞뒤를 연결한 뒤, 진동 둘째 선을 따라 머슬린에 표시하여 시접을 정리한다.<그림 19-21>

(3) 칼라는 5 cm 내외 높이의 직선 형태로 목을 감싸듯이 약간 달라붙고, 앞 중심에서 여며진다. 뒷 중심 세로 방향이 길 방향이고 앞으로 올수록 자연스럽게 휘어져 앞 중심에서는 약간 바이어스 된다.<그림 22>



<그림 19> 몸판구성1



<그림 20> 몸판구성2



<그림 21> 몸판구성3



<그림 22> 칼라구성

(4) 바스크는 V 자형 허리선을 따라 6조각이 겹겹이 달리게 되는데, 바스크 자체도 약간 곡선을 형성하며 허리선에 융합되어 아래로 약간씩 퍼지는 볼륨을 형성한다. 앞 중심과 뒷 중심에 달리는 바스크는 앞 뒤 중심이 식서가 되고 그 외의 바스크들은 중앙이 식서가 된다.<그림 23-24>

(5) 소매

윗 소매와 아래 소매 두 장으로 구성되며 팔꿈치부터 팔목까지의 소매 아래는 앞으로 자연스레 휘어진 모양을 한다. 진동둘레의 깊이는 낮고 진동 폭이 넓은 형태로 어깨와 소매 접합 부분의 여유가 없어 매우 밀착된 외관을 보이거나, 진동둘레 아래쪽과 양쪽 폭에 여유가 있어 팔을 뻗었을 때 움직임이 편하고 원할 하다. 진동둘레는 봉합을 하거나 구멍을 뚫어 끈으로 연결하였는데, 이 진동둘레의 봉합부분에 거드랑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날개가 달려 덥히게 된다.<그림 25-26>



<그림 23> 바스고 구성1



<그림 24> 바스고 구성2



<그림 25> 소매구성1



<그림 26> 소매구성2

2) 오 드 쇼스

앞 뒤판 각각 두 장과 허리 한 장으로 구성된다. 25 cm 가량을 주름 여유분으로 하는 바지 폭으로 하고, 허리선은 거의 일직선으로 앞 중심에서만 아래로 약간 기우는 넓은 폭으로, 후에 촘촘하게 주름 잡아 2.5 cm 가량의 좁은 일직선 허리띠에 봉합하게 된다.

엉덩이 부분 역시 허리과 동일한 폭으로 넓어서 입게 되면 엉덩이 부분으로 주름이 몰려 편안하게 흘러내리게 된다.

옆선은 직선 형태이고, 다리통 안쪽은 바깥으로 급격한 경사를 이루어 무릎으로 갈수록 좁아 드는 형태의 패턴이다.



<그림 27> 바지 구성

밑 위 길이는 매우 길며, 뒤 중심은 직선이고 앞여밈 부분의 단추 달리는 부분은 오목하게 파여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된다. 3cm 폭 12cm 가량의 브라켓뜨를 따로 재단하여 단추와 실고리로 앞여밈을 할 때 벌어지는 부분 속에 덧대어 연결하여 가렸다.

바지단선 앞은 내려오고 뒤는 올라가 무릎의 움직임이 편안하도록 되어있다.

완성된 앞, 뒤, 측면 사진이다. <그림 28-30>

<표 1> 뿌르뵘앙과 오 드 쇼스의 구성 결과 표

뿌르뵘앙(Pourpoint)		오 드 쇼스 (Haut-de-chausses)
몸판(Bodice)		소매(Sleeve)
앞길(Front)	뒷길(Back)	- 바지길이 55cm로 종아리 길이 - 허리에 매우 많은 주름 분-옆선은 직선이고 가랑이 안쪽은 사선으로 매우 넓은 폭으로 밀단으로 갈수록 좁아짐 - 여유 있게 밀착되는 밀단의 앞은 사선 뒤는 곡선 - 직선 앞여밈에 3cm폭 플라이가 달림 - 직선 허리띠
- 라운드 네크라인에 5cm 높이 스탠딩칼라 달림 - 앞 중심 길이 36cm - 옆선 수준에서 허리 라인보다 3cm 올라간 위치에서 앞 중심 쪽으로 7cm 내려와 뽀족한 예각을 이루는 형태의 허리선 - 옆선이 5cm 뒤로 이동	- 뒷 중심길이 35cm - 어깨길이 13cm - 옆선이 뒤로 이동하여 매우 좁은 뒷길을 형성 - 허리선 3cm 올라감	
- 소매길이 58cm - 손목까지 전체적으로 밀착된 일자 소매 - 소매산이 매우 낮고 어깨에 밀착됨 - 2장으로 구성 - 팔 형태로 자연스럽게 앞으로 휘어짐 - 진동을 따라 날개(Wing)가 상감됨		
- 허리선 하단에 길이 11.5cm 폭 15cm 크기의 사다리꼴 형태 바스끄가 10장 달림		



<그림 28> 완성 정면



<그림 29> 완성 측면



<그림 30> 완성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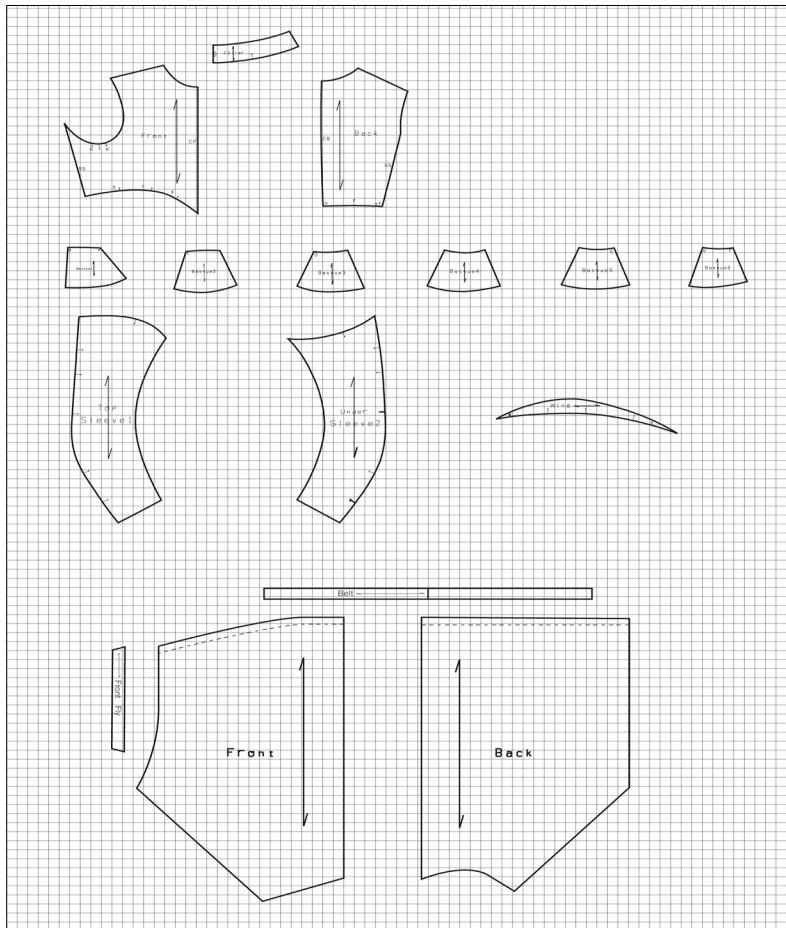
2. 패턴 구성

몸판은 앞뒤 각각 두 장 이고, 칼라 한 장, 바스끄 열두 장으로 구성된다. 앞 몸판은 편편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옆선이 뒤쪽으로 많이 가 있고 바스끄가 달린 허리선은 옆선에서 앞 중심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곡선을 그린다. 진동은 펼쳐진 패턴의 형태상에서는 좁고 균형 있는 폭을 보인다. 뒤 몸판 패턴에서 옆선은 허리 부분으로 갈수록 뒤 중심선에 가까운 사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바스끄는 사다리꼴 형태를 하는데, 앞 중심에 달리는 바스끄는 앞 중심

쪽이 좀 더 뾰족하다. 칼라는 직선 형태로 뒷 중심에 앞 중심으로 갈수록 약간 휜 형태를 보인다.

소매는 윗 소매와 아래 소매 모두 밀착되고 휘어진 형태로 완전히 포개어지며, 윗 쪽 소매 꼭대기에서 아래쪽 소매 겨드랑이 끝점까지 가 매우 낮다. 날개는 길고 완만하게 휘어 진동에 잘 감기도록 되어 있다.

오 드 쇼스는 앞뒤 각각 두 장으로 엉덩이선 옆선 모두 직선 형태이고 앞여밈 부분의 단추 달리는 부분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된다. 허리띠도 직선으로 허리전체에 촘촘한 주름이 잡힐 만큼 넓은 폭이다. 다리 부분은 바깥으로 급격한 경사를 이루어 입게 되면 엉덩이 부분으로 주름이 몰려 편안하게 흘러내리게 된다. 무릎선 앞은 내려오고 뒤는 올라가 역시 무릎의 움직임이 편안하도록 되어있다. 허리띠는 2.5 cm 가량으로 좁은 직선형이다.



<그림 31> 뷔르뵤앙과 오 드 쇼스 패턴 (Scale : 1/10, 1 square=2.5cm)

IV. 결 론

연구된 대표유형은 다소 부자연스럽고 과장된 바로크 실루엣에서 벗어나 경쾌하고 자연스러운 로코코 실루엣으로 이전하는 과도기적 디자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매나 몸판의 스투쉬 장식사이로 보이는 안감과의 조화가 독특하고, 레이스 들린 목장식과 커프스가 세련미를 주었으며, 금사나 은사를 섞어 짜거나 자수한 직물과 레이스, 단추 등의 장식으로 절제된 실루엣에 화려함을 더 하였다.

1. 몸판은 직선적인 재단으로 매우 밀착되어 있고, 앞 길 옆선이 5cm 뒤로 이동되어 있다. 뒤 중심에서 허리 라인보다 3cm 올라간 위치에서 앞 중심 쪽으로 7cm 내려와 뾰족한 예각을 이루는 허리선 형태로 앞 중심 길이가 36cm이다. 라운드 네크라인에 5cm 높이 스탠딩칼라가 달렸고, 칼라부터 허리선까지 매우 촘촘하게 단추가 달려 있다.

2. 허리선에 길이 11.5cm 폭 15cm 크기의 사다리꼴 형태 바스끄가 10장 달려, 허리 하단의 움직임은 원활하게 하고 바지와 연결부위를 가렸다.

3. 비교적 팔 모양의 흐름을 그대로 지닌 길이 58cm의 소매는 두 장으로 구성되었고, 진동 둘레의 시접에는 안감 없는 초생 달 모양의 날개를 덧대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양쪽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솔기를 강화하였다.

4. 오 드 쇼스는 허리에서 주름을 풍성히 잡아 엉덩이 부분이 부풀려져서 여유가 있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 들어 무릎 아래까지 이르며, 3cm폭 12cm길이 직선 프론트 플라이로 앞여밈이 고착되어 현대의 바지에 근접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양희(2006). 16-20세기 초 프랑스 패션문화와 패션잡지의 변천. 의상디자인학회지. Vol.7. No.2.
2. Nobiles Galli. (1598). BNF. Oa19 M11271.
3. Tavernier, M. (1629). Le Jardin de la noblesse. BNF. Oa19 M11390.
4. Bosse, A. (1634). Le coutisan suivant le dernier edit. BNF. Oa45 R071400.
5. Arnoult, J. (1985). Patterns of Fashion: The cut and construction of clothes for men and women c1560-1620. London: Macmillan London Limited.
6. Mersens, J. (1625) Antoine de Bourbon. BNF. Oa19 M11318.
7. Hals, D. (1630경). Réunion dans un cabaret. Coll. H. Leroux.
8. Elle, F. (1631). Henri II de Lorraine. Musée de Reims.

9. Roy, H. (1924). La vie, la mode et le costume au XVIIIe siècle: Epoque Louis XIII: Etude sur la cour de Lorraine. Paris: E. Champion.
10. Alcega, J. de. (1598). Libro de geometrica. Espagne: Fac-simile de l'édition.
11. Boullay, B. (1671). Le tailleur sincère. Paris: BNF.
12. Waugh, N. (1964).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London: Faber.
13. Leloir, M. (1933-1949). Histoire du costume de l'Antiquité à 1914: Epoque Louis XIII 1610-1643. Paris: Ernst.